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0년 4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유법민 투자정책과장(02-2110-5351), 박성우 사무관(5363)	

'11년 1/4분기,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

◇ **전년동기대비 30.1% 증가한 20.1억불 유치**
◇ **일본 대지진 불구 일본 투자 증가(40.1%↑)**
◇ **신흥국 비중('10.1/4분기 25.8% → '11.1/4분기 36.7%)·그린필드형(48.7%↑) 증가**

1. 전반적인 동향 및 평가

□ **(동향)** '11년 1/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액(신고기준)은 전년 동기(1,541백만불) 대비 **30.1% 상승**한 **20.1억불** 유치

(단위: 백만불, %)

구분	'09.1/4	'10.1/4	'11.1/4
신고금액	1,677	1,541	**2,005**
증감율	△38.2	△8.2	**30.1**

○ 도착금액은 14.6억불이며, 도착비율(도착금액/신고금액)은 73.0%

□ **(전반적 평가) 중동·북아프리카 정정불안, 일본 대지진**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FDI 상승세 유지

○ **(특징)** EU·중동 지역을 제외한 **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자가 증가**하였으며, **그린필드형 투자 급증,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증가세가 뚜렷**

- 지난해 상반기 투가가 급감*했던 **미국**(1,068%↑)·**일본**(40.1%↑)**의 對韓 투자가 급증**하여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

* '10년 1/4분기 주요국 투자 동향(전년 比) : 미국 88.9%↓, 일본 60.4%↓

- **그린필드형 투자**는 증가**(48.7%↑)**, M&A형 투자 소폭 감소(5.1%↓)하는 지난해 추세가 지속

- 제조업(20.3%↑)·**서비스업(45.7%↑)** 모두 증가세, 특히 비즈니스서비스·유통 분야 투자가 급증하여 **서비스업 증가 뚜렷**

* '10년 1/4분기 업종별 특징(전년 比) : 제조업 감소(28.5%↓), 서비스업 증가(8.6%↑)

○ **(요인) 미국의 양적완화정책**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, 우리나라 경제의 **견조한 성장세 전망***,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환경** 등에 힘입어 對韓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

* '11년 성장률 전망치(IMF, 1월) (%) : (美)3.0, (日)1.6, (中)9.6, (유로)1.5, **(韓)4.5**

** 비즈니스 환경순위(World Bank's Doing Business, '10.11월) : ('08) 23위 → ('09) 19위 → ('10) 16위

○ **(일본 대지진 영향)** 일본 대지진(3.11) 이후에도 1.29억불이 투자 신고(금년 전체투자 3.7억불 대비 35%)되어 **지속적인 유입 추세(40.1%↑)**

- 일본 대지진에 따른 對韓 투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관리중인 주요 **對日 투자유치 프로젝트**에 대해 점검한 결과

- 대부분의 기업이 동경 등 수도권 인근지역 소재기업으로 금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**對韓투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**

2. 분야별 세부 내용

1 **(국가별)** EU·중동을 제외한 **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**하였으며, 특히, **미국 및 중화권 투자가 급증**

○ **(전통선진국) 미국·일본의 對韓 투자가 크게 증가, EU는**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투자 감소

- **미국**은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**투자 급증**(467백만불, 1,068%↑), **전기전자**·운송용 기계 등 **제조업***분야가 **크게 증가**(3,333%↑)하고, **금융·보험***(3,670%↑) 등 서비스업도 증가(410%↑)

* K사(80백만불, 태양광모듈), I사(32백만불, 반도체), K사(30백만불, 유사반도체), T사(1.5백만불,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) 등

** A생명보험(26.6백만불, 생명보험), K사(9.1백만불, 투자자문) 등

- **일본**은 **대지진에도 불구**하고 투자 증가(367백만불, 40.1%↑), **제조업 분야 감소**(36.0%↓)에도 불구하고, **유통*·비즈니스서비스**** 등 **서비스업 분야 증가**(151.5%↑)**로 증가세 유지**

* A사(41.5백만불, 신발), K사(44백만불, 건축인테리어) 등

** D사(53.6백만불, 경영컨설팅), A사(20.6백만불, 바이오상품 개발), T사(5.2백만불, 소프트웨어 개발) 등

- **EU**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투자 감소(434백만불, 48.5%↓), 기계장비,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투자는 늘었으나 그 외 **대부분 업종이 감소**

○ **(신흥자본국) 중화권**(중국, 싱가폴, 말레이시아, 홍콩, 대만) **투자가 크게 증가**(333백만불, **106.8%↑**)하여 지난해에 이어 **신흥국 투자 비중 증가** ('10.1분기 25.8% → '11.1분기 36.7%)

- **중국**은 China Desk 등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위안화 강세 등에 따라 **자동차부품***, 금속 등 **제조업** 중심으로 **크게 증가**(65백만불, 103.1%↑)

  * P사(39.5백만불, 전기자동차 부품), B사(10백만불, 자동차엔진 부품) 등 49.5백만불

- 싱가폴, 말레이시아, 홍콩 등 기타 중화권은 지역개발,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업* 중심으로 증가(268백만불, **107.8%↑**)

  * S사(1억불, 싱가폴, 마리나 개발), J사(12백만불, 싱가폴, 디자인), R사(82.3백만불, 말레이시아, 지역개발), H사(22.3백만불, 홍콩, 보험) 등

- **호주***(55백만불, 3037%↑) 등 기타지역 투자도 급증(348백만불, 324.3%↑)

  * S사(50백만불, 의약품 및 신약개발) 등

- **중동**은 민주화 소요사태로 해외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투자 급감(55백만불, 64.3%↓), 신재생에너지*, 금융·보험 분야 중심으로 투자 유입

  * A사(40백만불, UAE, 태양광모듈) 등

<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: 백만불,%)

연도	'09.1/4	'10.1/4	'11.1/4	증감율
전통선진국	1,554	1,144	1,268	10.8
미국	358	40	467	1,067.5
일본	661	262	367	40.1
EU	535	842	434	△48.5
신흥자본국	123	397	737	85.6
중화(중국)	33(8.8)	161(32)	333(65)	106.8(103.1)
중동	16	154	55	△64.3
기타	74	82	348	324.3

2 **(업종별)** 지난해 1/4분기 제조업 감소세와 달리 **제조업·서비스업 모두 증가, 특히, 서비스업 증가세 뚜렷**('10년 823백만불 → '11년 1,199백만불, 45.7%↑)

○ **제조업(787백만불, 20.3%↑)**은 **전기전자*(187.6%↑)**, 운송용 기계, 기계장비 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, 의약, 금속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

* K사(80백만불, 美, 태양광모듈), A사(40백만불, UAE, 태양광모듈), I사(32백만불, 美, 반도체), K사(30백만불, 美, 유사반도체) 등

○ **서비스업(1,199백만불, 45.7%↑)은** 유통*(**465.8%↑**), 금융·보험**,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

* A사(41.5백만불, 日, 신발), K사(44백만불, 日, 건축인테리어), S사(24.3백만불, 홍콩, 화학제품), B사(18.8백만불, 獨, 전자제품) 등

* A손해보험(40.8백만불, 佛, 손해보험), A생명보험(26.6백만불, 美, 생명보험) 등

<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 : 백만불, %)

업 종	'09.1/4	'10.1/4	'11.1/4	증감율
제조업	913	654	787	20.3
- 전기전자	681	105	302	187.6
- 기계장비	31	78	122	56.4
- 의약	0.07	202	58	△71.3
서비스업	757	823	1,199	45.7
- 금융·보험	202	231	269	16.5
- 도·소매(유통)	303	73	413	465.8
- 비스니스서비스	135	68	176	158.8

3 **(형태별) 그린필드형 투자**(1,499백만불, 48.7%↑)**가 증가**하고, **비중도 크게 확대** ('10.1분기 65.4% → '11.1분기 74.8%)

○ 기업환경 개선 등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가 및 신규 투자가 발굴 노력 등을 통해 **지난해 추세가 지속되어 크게 증가**

○ **M&A형 투자**(506백만불, 5.1%↓)는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활발('10년, 13%↑)한 지난해 추세가 이어져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&A는 소폭 감소

* '10년 기업결합 금액 증감율(전년比, 공정위, 11.1월) :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13%↑,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28%↓

4 **(지역별) 서울**을 비롯하여 **6대 광역도시권의 투자가 증가**('10년 1/4분기 776백만불 → '11년 1/4분기 1,096백만불, 41.2%↑)

○ 금융, 유통, 비즈니스서비스 등 **서비스업 투자 증가**로 인해 **서울(66.7%↑)**이 크게 증가

○ 지역별 **투자규모**로는 **서울(825백만불)**, 경기(277백만불), 광주(76백만불) 순

3. 향후 전망 및 추진계획

□ **(FDI 여건)** 일본 대지진 여파, 중동지역 정정불안, EU 재정위기 지속, 국제유가·원자재가 상승, 원화 강세 지속 등 **불확실성 및 불안 요인이 부각**되고 있는 상황

○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세, 美·EU와의 FTA 발효, 신흥국의 해외투자 증가, 다국적 기업의 풍부한 자금력* 등 **긍정 요인도 병존**

* 세계 FDI 전망(UNCTAD, '11.1월) : '10년 1.12조불 → '11년 **1.3~1.5조불** 전망
특히, 다국적기업은 약 4~5조불 수준의 신규투자 예상

□ **(일본 대지진 영향) 일본 대지진**으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복구 작업, 의사결정 지연 등 단기적으로는 **다소 위축**될 수 있으나 **영향은 제한적**일 것으로 전망

○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어 **투자유치 기회요인도 존재**

○ 다만, **원전피해 확산** 등 **사태가 장기화**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**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**

□ **(향후 계획)** 금년 FDI 확대를 위해 **IR개최** 등 **외국인투자유치활동 강화**하고, **밀착 지원** 및 **상시 애로해소 지원** 체계 강화

○ **고위급 해외순방과 연계**하여 **상반기 중 국가IR을 집중개최,** 외국인 투자가의 **심리적 위축 방지** 및 **우호적 對韓투자 분위기 조성**

< '11년 2분기 국가 IR 계획 >

시기	국가	활동내용 및 유치대상	비 고
5월	독일(프랑크푸르트), 덴마크(코펜하겐)	부품소재, 신재생에너지	고위급 해외 순방 연계
	아부다비 투자가 방한초청(서울)	국부펀드 유치 및 국내기업 진출	양방향 투자협력
	중국(북경)	관광·레저, 신재생에너지	한중 투자협력 위원회(5.31) 연계
6월	러시아(모스크바)	나노·의료기기, IT·에너지, 금융,지역개발, 진출기업	제4차 한-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(6.14) 연계

○ **주요 프로젝트 점검** 및 **밀착 지원** 등을 통해 **FDI 제고노력 강화**

- 분기별 **프로젝트 점검회의** 개최,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**고위급 면담** 등을 통해 투자유치 실적 제고

○ 외투기업의 **상시적인 애로해소 지원**을 통한 **증액투자 활성화 유도**

- **옴부즈만**의 **현장애로 발굴**과 유관기관과 해결협조 강화, **홈닥터 왕진 서비스 확대**('11년 750회 이상) 등 고충처리 지원 강화

붙임 : 2011년 1/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동향